

보도일시 (인터넷) 2023. 10. 26.(목) 11:00, (지면) 2023. 10. 27.(금) 조간 배포 2023. 10. 26.(목) 06:00

##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준공 기념, 자동화장비 시연행사 개최

- 10월 27일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에서 자동화장비 시연행사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이하 서'컨') 2-5단계 준공을 계기로 10월 27일(금) 오전 11시부터 서'컨' 부두에서 완전 자동화 항만하역장비 시연행사를 개최한다.

이번에 준공된 서'컨' 2-5단계 부두는 국내 최초의 전 영역\* 자동화 항만이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AGV, Automated Guided Vehicle)를 도입하고, 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의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안벽부터, 이송, 야드 전 구간이 자동화된 만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도 중단없는 항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서'컨' 2-5단계 부두는 약 3,400억 원 규모의 국산 하역장비를 도입하여 부가가치 2,110억 원, 생산유발 6,417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아 국내 스마트 항만산업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받는다.

\* (안벽) 컨테이너 하역 → (이송) 안벽에서 적재지역 이동 → (야드) 적재지역 보관

이번 행사에서는 자동화 장비를 활용한 컨테이너 하역 및 이송 작업 전 과정을 시연할 계획이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터미널 운영사 및 선사 등 해운·항만 관계자 약 200명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서'컨' 2-5단계 부두 준공은 우리나라 최초로 완전 자동화 항만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혁신적 성과이다.”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향후 광양항과 인천항까지 자동화 항만을 확산하는 한편,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부산항 진해신항에 한국형 스마트 항만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책임자	과 장	오영록 (044-200-5750)
		담당자	사무관	진승준 (044-200-5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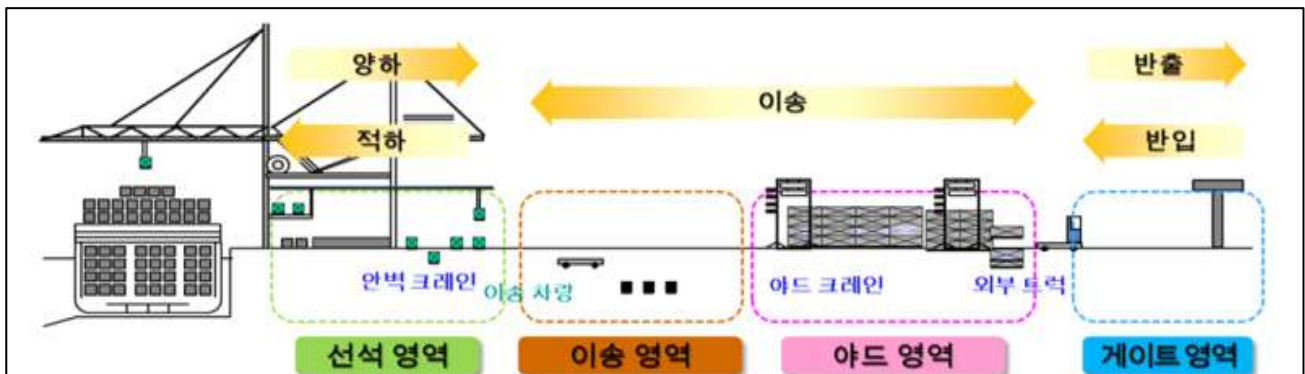
## 참 고

## 완전자동화 부두 개요 및 서 '컨' 부두 현장전경

### □ 완전자동화 부두

- 자동이송장비(AGV)\* 도입, 무인차량 위치감지장비 매립, 자동화터미널 운영시스템(TOS) 구축 등 소구간(안벽-이송-야드) 완전 자동화 구현

\* Automated Guided Vehicle / 바닥에 깔린 신호선에 의해 움직이는 자동화 Y/T



구 분	선석 영역	이송 영역	야드 영역	자동화 수준
국내 '컨' 부두	X (수동 크레인)	X (야드트랙터 등)	O (원격 크레인)	부분 자동화
신항 서컨 2·5단계 부두	O (원격 크레인)	O (AGV)	O (자동화)	완전 자동화

### □ 서 '컨' 부두 현장전경('23.10)

